

8·6 히로시마 평화모임 2024

시민에 의한 평화선언(안)

피폭·패전 79년 반전·반원자력·반제노사이드

-이스라엘의 가자학살, 팔레스타인점령을 그치자-

천황제일본군국주의에 의한 아시아침략전쟁의 패배와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전쟁,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무차별대량학살로부터 79년을 맞이한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에 의한 아시아태평양침략전쟁의 가해책임, 미국 군산학복합체에 의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무차별대량학살의 가해책임을 추궁하여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천황제를 유지한 미국의 피점령국가로 시작한 ‘전후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추궁해왔다.

이간 세계정세는 미얀마의 국군쿠데타, 러시아·푸틴정권에 의한 우크라이나침략전쟁, G7 대 러시아, 미·중대립의 격화,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가자에 대한 제노사이드(민족대량무차별학살)등이 지금도 계속되어 있다.

2023년 5월에 청일전쟁이후 아시아침략의 출격거점인 우지나에서 G7 정상회의가 진행되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의 군확, 군사동맹강화, 우크라이나전쟁격화, 확대핵역지강화, 디리스킹(경제적위협회피)를 합의했다.

이에 대해 히로시마시도 추종하고있다. 히로시마시의 평화기념공원과 미국 펠하버기념 ‘공원’ (군사기지이며 전승헌창시설)과의 ‘자매’ 제휴가 강화된 일에도 나타나고있다. 또 마쓰이가즈미 히로시마시장은 취임부터 오늘까지 신임직원연구회에서 ‘교육칙어’를 인용하여 일본국헌법 준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도 밝혀졌다. 이는 바로 그라운드 제로인 히로시마가 가지는 ‘핵제노사이드의 원점’이라는 뜻을 야금야금 빼앗아 히로시마를 ‘핵역지력=미국의 지배하에서 <평화유지>’라는 상징으로 바꾸어버리려는 움직임이다.

심지어는 히로시마시가 개최하는 ‘평화기념식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공격을 계속하는 러시아·벨로루시는 초대하지 않는 채 2023년 10월 7일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제노사이드를 계속하는 이스라엘은 초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히로시마시의 이중기준을 허용하지 않고 초대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2022년에 시작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침공에서는 핵의 표적으로서 원자력발전소가 겨냥되고 있다. 핵의 평화리용이라는 원전은 있을 수 없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대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운전하면 핵의 막대한 쓰레기가 발생하여 처리, 처분을 못하는 원전은 그만둬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핵제노사이드의 원점인 히로시마에서 즉시정전, 국제법위반의 점령로부터의 해방을 세계의 반전·반원자력·반제노사이드운동과 연대하여 호소해나가야 한다.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의 불법점령은 1948년 억지로 선포된 건국선언부터 시작되어 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토지에 귀환하는 권리를 빼앗을뿐이 아니라 자유롭게 오가는 권리, 안전하게 안심해서 사는 권리까지 빼앗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에 추종하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추종을 그만두고 즉시정전을 위해 행동하도록 요

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여 지금까지 계속되는 식민주주의의 청산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구레에서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닛테즈 흔적을 방위성에 매도하여 거대한 군사거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기시다정권에 의한 오키나와·이와쿠니를 비롯한 일미안보·군사일체화·기지강화,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의 일환이다. 이와 같은 군사력강화를 저지하고 구군항시전환법(군전법)의 적용을 구레시에 요구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여느때없이 격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제적·정치적몰락에서 오는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격화하고 한미일군사연습이 연이어 진행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군사태세를 그만두고 남북조선민중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도 미국에 의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어 있다.

미얀마에서는 국군에 의한 군사쿠데타가 계속되어 있어 징병제가 시작되었다. 일본정부에 대해 재류미얀마인 및 일본에로의 피난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의 안전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각지에서 제출되어 있다.

‘지구비등화’라고 불리우는 기후변동문제를 이념 방치하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의 존망을 좌우하는 위기가 우리의 눈앞에까지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비무장·비동맹·중립의 일본, 극동에서의 대립구조의 해소, 조선반도의 평화적통일, 미얀마의 민주화, 민중을 의한 우쿠라이나의 평화,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향하여 대화하고, 행동·결집해나갈 것을 피폭 79년을 맞이하는 히로시마에서 호소한다.

- 일본정부에 대하여 미국의 확대핵역지의 의존에서 탈각하여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비준할 것을 요구한다. 조선반도, 북동아시아의 비핵무기지대화를 실현하자. 헌법위반의 육해공자위대발족부터 70년이 지났으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반대, 일미군사 일체화반대, 일미한의 군사동맹강화반대, 일미·미한·일미호인·RIMPAC(환태평양제국해군합동연습)등의 모든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요구한다.
-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에서 즉시철퇴를 요구하며, NATO의 과잉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일본정부에 의한 모든 군사지원에 반대한다. 일본정부에 대하여 러시아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고, 더 이상의 희생자를 영원히 내지 않도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의 화평교섭실현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 ‘핵제노사이드의 원점’에서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의 점령계속과 불법입식, 아파트헤이트정책, 가자학살을 단호히 반대하며 즉시정전을 요구한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에 추종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미국추종을 그만두고, 정전실현을 향해 즉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에 만연하는 식민주주의를 청산하고, 재래를 막아야 한다.
- 일미양정부에 의한 미병범죄 은폐에 대해 단호히 항의하며, 일본정부에 대해 미군에 맞서 시민의 인권우선을 위한 의연한 대응을 요구한다. 재일미군 및 자위대의 새로운 배비나 증강에 반대한다. 오키나와전 희생자의 유골이 포함되는 토사 등에 의한 헤노코신기지매립공사 및 류큐코의 자위대기지건설의 즉시 중지를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군사기지 및 원전의 주변지역에서 행동하는 시민을 탄압하는 ‘중요토지규제법’의 즉시 폐지를 요구한다.

- 핵피해확산과 생태계파괴를 초래하는 원자력발전을 즉시 정지시켜 가동에 반대한다. 후쿠시마 제일원전사고의 책임을 나라와 도쿄전력에 인정시켜,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완전한 배상을 요구한다. 새로운 환경오염과 피폭을 초래하는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즉시 중지하라. 방사성폐기물을 산업폐기물에 섞여서 버리지 마라. CO₂삭감이나 전력공급의 핍박을 명목으로 한 원자력 정책에 반대한다. 시마네원전을 재가동하지 마라. 가미노세키에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마라. 가미노세키 원전건설계획을 백지철회하라.
- 일본정부에 대해 재조피폭자· ‘검은 비’ 피폭자를 포함한 모든 피폭자에 대한 보상실현을 요구한다.
-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책임을 일본정부와 기업에, 그리고 전시성노예제의 책임을 일본정부에 인정시켜 성실한 사죄와 배상, 또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시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 아시아침략의 가해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2년 일조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일조국교정상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철폐시키자.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해 ‘고교무상화제도, ‘유보무상화제도’ 를 즉시 적용시켜야 한다.
- 원폭피해의 실상과 아시아침략의 거점이었던 가해의 역사를 전하는 히로시마륙군피폭시창 등의 역사적인 귀중하고 중요한 전적·피폭건조물을 현재의 규모로 보존하고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 구레시의 닛테쓰 흔적에서의 거대군사거점만들기에 의한 지역주민을 무시한 전쟁준비·군사력강화를 저지하고 군전법에 기초한 평화산업항만도시의 완성을 구레시에 요구한다.
- 군사쿠데타에 계속 저항하는 미얀마(버마) 시민들과 연대하고 일본정부와 진출기업의 군사정권에 대한 지원을 규탄한다.
- 2023년에 이어 2024년 6월에 성립한 입관난민법의 개악은 종래의 입관법이 내포하는 근본적문제의 해결을 무시하고 입관행정의 뿌리깊은 인권침해의 구조를 온존·강화하여 영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입관행정의 원류에는 전전의 식민지 지배, 전후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배척의 과거가 있다. 일본사회는 지금이야말로 차별과 배척의 역사를 끝장내고 재일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개악한 입관법의 시행에 반대한다.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재일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난민인정법의 제정, 독립한 국내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한다.
- 마쓰이가즈미 히로시마 시정에 의한 8월 6일 아침의 원폭돔 주변에의 입장 규제· “표현의 자유” 압살에 반대한다.

2024년 8월 5일

8.6 히로시마평화모임 2024 참가자일동

연락처 : 전화 090-4740-4608

E-mail 86tudo,hiroshima@gmail.com